



‘장난감 당근칼’ 구매 및 소지 방지 관련 협조 요청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당근칼’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하여 교내에서 위협적인 놀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근칼’은 칼 모양 플라스틱이 숨겨져 있는 이른바 ‘잭나이프’ 형태로 당근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지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온라인 SNS를 통해 소개된 ‘당근칼’은 14세 이상 구매 가능한 제품이지만 무인 상점,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연령 제한 없이 판매되어, 당근칼을 사용한 찌르기, 목 겨누기, 인질 놀이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흥기 익숙해질라’ 제동...당근칼 금지령
- “장난이라며 찌르며 놀더라”...초등생 ‘당근칼’ 유행에 놀란 학부모들

올해 여름부터 장난을 빙자한 청소년들의 칼부림 예고글 게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고, SNS에서 당근칼 조작 기술 등 관련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학생들 사이에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칼부림 모방 놀이 문화로 인하여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17일

남 원 노 암 초 등 학 교 장